

전북도 각급 학교 평화통일계획 활성화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전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된다. 또 교육공무원과 학교장,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국의원은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교육청

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방향으로는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의 실현

▲개인적·담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 통일 환경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의 책무도 명시했다.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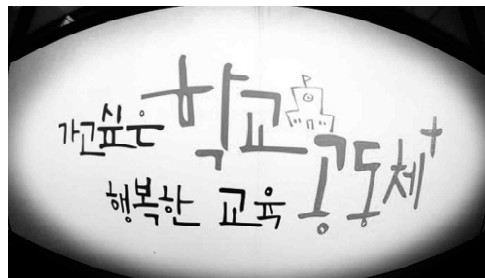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러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외에도 '전라북도 학교순회 및 관리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 모니터링 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안전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도 9월 30일자로 공포했다.



학교시설관리, 사회적 기업에... 고용효과 '톡톡'

전북도교육청, 청소·방호업무 등 시니어클럽 등에 계약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2백여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사회적 기업 등에 계약해 고용창출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년 학교시설 유지관리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총 98억 원의 투입 예산을 통해 도내 222개 초·중·고등학교의 청소와 방호 업무를 사회적 기업, 시니어클럽 등에 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4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시설 유지관리에는 (유)국민종합주택관리 등 22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제 시니어클럽 등 10개 시니어클럽이, (유)창대환경 등 4개 자활기업 등 총 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만족도도 높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98.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학교가 원하는 업체가 직접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 경감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력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학교환경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2가지 도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

제5회 전북이중언어말하기대회, 김제검산초 이우영, 고창여고 이문정 대상 수상

“두 나라의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디폴트 가정만의 장점입니다. 저는 이 장점을 열심히 키워 장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꿈은 한국과 일본의 좋은 문화를 배워 양국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5회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은 고창여고 2학년 이문정 학생의 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4일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제검산초 6학년 이우영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고창여고 2학년 이문정 학생이 중등부 대상을 받았다.

초등부 금상은 삼례중앙초 최진호, 변산초 노재일, 은산은 관산서해초 신민아, 삼계초 정주희, 흥덕초 이해원, 동산은 전주여울초 권유세, 이리동초 엄민호, 신대인초 이민호, 동향초 박민, 순창초 강동호 학생이 수상했다. 중등부 금상은 화산중 한나결, 은산은 전북중 왕정, 진경여고 현예림, 동산은 남원중 김영준, 남원안빛중 장영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 대상 초등 1명과 중등 1명, 소수언어 우수자 1명은 10월 20일 마태에셋대우 과천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및 이중언어(부모 모국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매년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자유 주제, 중등은 진로 관련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 각 3분씩 6분 동안 한국어를 먼저 발표한 후 동일한 내용을 부모 모국어로 발표한다.

전북도교육청, 가을 맞아 감성 연수 추진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풍과 협력하는 전북교육정책 추진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감성연수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5일부터 7일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8백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감성연수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결혼포럼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먼저 5일에는 학교 근무 6급 행정직과 사무운영 공무원 6백여명을 대상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역별 3차제로 나눠 ▲전라북도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자존감 회복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등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또 10일에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7급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직이 꼭 알아야 할 교육과정과 갯벌생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양

2016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2016전라북도교육감배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지난 26일 완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에 전주, 익산, 김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도내 초·중·고 학생 총 426팀(초 200팀, 중 123팀, 고 103팀) 3,0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 종목은 넷볼, 농구, 배구, 배드

민턴, 족구, 줄넘기, 축구,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연식야구, 프리테니스, 차리러닝, 플라잉디스크 등 총 16개 종목이 치러졌다.

1인 스포츠의 활성화로 평생체육의 습관 형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양을 위해 실시된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연장이었으며, 9월 4일까지 각 지역리그를 마무리한 지역대표팀이 참여했다.

각 종목별 우수 팀은 10월 29일부터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전북대표(초 등 25팀, 중학교 22팀, 고등학교 18팀)로 참가하게 된다. 전주생명고 풋살, 김제여고 줄넘기 등은 전국대회 상위임상 후보 팀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경기장 별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과 응원인 ‘사부자(師父子)’가 함께하는 스포츠 축전으로 승화 되었다”면서 “축구, 풋살, 농구 등 부상 위험도가 높은 종목은 구급요원 및 앰블런스를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등 경기운영에서도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 대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교사 연수 개설

전라북도교육청의 전라북도교육연구원이 교사와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직무 연수를 개설한다.

9월 30일 전북교육연구원(원장 김순영)은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학교를 통한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제”를 주제로 한 직무 연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사와 전문직 40명으로 대상으로 한 구제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마을농업고등학교 탐방 ▲시흥 마을교육공동체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 ▲풍성학교 탐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수는 희망자를 모집해 11월 초 개강식을 갖고 3일간 15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석수 기자 ksh@s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장학기금 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이영길)는 9월 28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 김순환 교육감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재)전라북도시립의정학교에 기탁되며, 학생들의 이 수혜를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005년부터 매년 (재)전라북도시립의정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김순환 교육감은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라며 “이 장학금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환풍기 빛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학/탐
아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대표이사 이지연
010-5488-2617
seohwa@seohwa.com
1598-282-9811
1598-111-9811